

새해에 부쳐

말 없는 말

운동 삼아 산기슭을 돌다 앞길로 나왔다. 갑자기 군집이 뜬다. 내 눈이 건너편 소형트럭에 가 있다. 50줄의 남녀가 빵을 굽고 있다. 부부였다. 트럭에 '호떡 3개 2000원 국화빵 한 봉지 2000원' 휘장이 나붙었다. "잘 팔려요?" 인사치레를 했다. 대답 없고 표정이 심드렁하다. 또 인사를 했다. 묵묵부답이다. 그제야 좀 당혹해 하는 여인. 그들 부부는 농아였다. 어떻게 장사를 할까. 여인이 얽게 웃는다. '어느 길 사겠느냐'는 말 없는 말이 있었다. 봉지 쪽을 가리켰다. 손짓과 웃음이 엮인다. '맛있다'는 언어들. 짙게 바른 그녀는 새빨간 재킷을 입었다. 화장한 얼굴과 빨간 옷이 말을 대신하고 있다. 돈을 건네고 봉지를 받아들었다. 순간, 손만이 아니고 가슴까지 따뜻해 온다.



김길웅
수필가·시인

"많이 파세요." 은연중 큰 소리로 인사를 했다. 안 들려도 들릴 것 같아서, 여인이 배시시 웃는다. 말 없는 말이다. 봉지엔 국화빵 12개가 들어 있었다. 한 개를 입에 넣었다. 맛이 별나지 않은 데도 거꾸 입으로 가져간다. 길이 꺾이는 지점에서 뒤 돌아본다. 짙 손놀림이 눈에 들어온다. 바지런하다. 바닥 인생이라 해도 저런 삶은 숭고하다.



"사회복지인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희망의 기축년(己丑年). 황금빛을 머금은 소띠 해의 태양이 서귀포시 안덕면 사계리 형제섬 너머 수평선 위로 힘차게 솟아올랐다. 소의 해인 2009년, 사회복지인 모두의 가슴에 만복이 깃들기를 기원한다.

"사회복지환경 선진화에 앞장"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는 올해 ▲ '연계중심의 복지'를 통해 사회복지발전을 선도하는 민간 사회복지계의 대표기관으로서의 소임에 최선을 다하고 사회복지환경 선진화에 앞장 설 계획이다. ★관련기사 2면

사람중심 복지

'사회복지아카데미' 안정적 운영

■ 사회복지발전의 원동력인 사회복지 종사자의 전문성 강화 (23개 과정, 221회, 2970명 교육)

전문위원회 운영 활성화

■ 각계 전문인력의 사회복지활동 참여 기회 확대 (사회복지제도개선·교육·조사연구·자원봉사 전문위원회)

지역중심 복지

'제주적인가치'를 반영한 사회복지활동전개

■ 지역현안에 대한 대안과 미래비전을 제시하는 조사연구활동 수행 (제주지역 사회복지총량조사, 사회복지지표 정기조사)

지역밀착형 나눔활동으로 수놓음정신 구현

■ 재가복지 자원봉사활동 확대, 푸드뱅크 기탁업체 발굴 확대

연계중심 복지

사회복지사업연계, 사회복지자원공유·교류 매개체 개발·운영

■ 사회적 비용 절감으로 사회복지활동의 효율성 강화
- 제주사회복지신문·사회복지단체연방 발간
- 사회복지종합정보망 '제주복지넷(jejubokji.net)' 콘텐츠 강화 : 복지발전소, 복지자원나눔터, 온라인상담실 등 운영

지면소개

- 종합 2·3면
2009년 협의회 주요사업
시설 탐방-제주케어하우스
- 사회복지소식 4·5면
청소년 대안교실·소식마당
푸드뱅크
- 오피니언 6면
칼럼·시론·기고
- 특집 7면
새해 달라지는 복지정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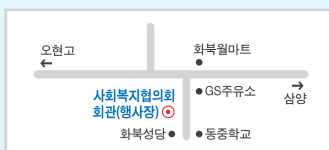


기축년(己丑年) 사회복지인 신년인사회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에서는 기축년 새해를 맞이하여 사회복지 관계자 여러분을 모시고 사회복지인의 화합과 새로운 도약을 다짐하기 위한 '신년인사회'를 마련하였사오니 부디 참석하시어 자리를 빛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장 이 동 한

- 일시 2009년 1월 9일(금) 11:00 ~ 12:00
- 장소 사회복지협의회 회관 삼다수홀
- 내용 - 유공자 시상
- 참가자 교례
- 오찬



종사자 눈높이 맞춘 다양한 교육 실시

사회복지제도개선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 운영 활성화
 사회복지총량조사 추진...자원봉사활동 UCC 공모전 개최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사회복지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교육 수요자의 눈높이에 맞춘 교육을 연중 실시해 사회복지 전문교육기관으로서의 위상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 사회복지정책의 흐름에 따른 지역사회복지 현안을 발굴하고 적극적인 정책 제언과 대안 제시 등 다양한 사업을 전개할 예정이다.

다음은 올해 협의회 주요 사업.

▲교육훈련사업=사회복지 종사자와 자원봉사자, 초등학교 등을 대상으로 23개 과정에서 200여회에 걸쳐 '사회복지 아카데미'를 연중 운영한다.

9월 사회복지의 날 기념 주간행사로 사회복지정책 특별강연을 실시하고, 인권교육(5월)을 비롯해 행정실무교육(7·12월), 노무관리(3월), 기획력 워크숍(4월), 전산교육(3·6·7~9·12월) 등 실무자교육을 지속적으로 진행한다.

또 자원봉사자관리자 교육(5월) 등 자원봉사교육과 찾아가는 초등학교 복지교육(3~11월), 지역주민 복지교육(6·10월),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등 다양한 교육이 이뤄진다.

▲조사연구사업=제주 현안에 대한 대안과 미래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사회복지정책 수립의 기초가 되는 사회복지지표 및 욕구조사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 총량조사를 추진, 사회복지시설·인력·자원규모 등 사회복지환경 전반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여 지역 사회복지계획 수립에 대비해 기초자료를 확보할 계획이다.

또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사회복지 주요지표를 조사해 협의회 홈페이지(www.jejubokjinet)에 구축된 시스템에 등록, 체계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사회복지관련 분야별 조사 및 연구자료, 각종 세미나 발표자료 등을 웹서비스로 제공한다.

▲협의·조정사업=협의회가 추진할 다양한 사업에 대학 교수, 공무원, 기업인 등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을 참여시켜 사회복지제도개선위원회와 조사연구전문위원회, 교육전문위원회, 자원봉사전문위원회의 운영을 강화한다.

또 사회복지 직능별 단체장·실무책임자 간담회와 사회복지담당 공무원 간담회 등을 열어 사회복지계의 주요 현안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공동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안 등을 모색한다.

▲출판·홍보사업=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협회회의 주요사업을 소개하고, 도민과 사회복지시설·단체 종사자들에게 유용하고 정확한 사회복지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제주사회복지신문을 매월 발행하는 한편 도내 사회복지시설·단체의 기본 현황과 주요 사업 등을 담은 '제주사회복지편람'을 발간할 계획이다.

▲사회복지증진사업=사회복지인에게 상호 교류의 기회를 제공하고 화합과 새로운 도약을 다짐하기 위한 '기축년 사회복지인 신년인사회'를 오는 9일 사회복지협의회 회관 삼다수홀에서 개최한다.

또 사회복지에 대한 도민 의식을 높이기 위해 제10회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을 9월 7일 개최하고 사회복지주간행사로 사회복지프로그램 프리젠테이션 대회를 열 계획이다.

▲꿈이루기성장프로그램=SK에너지(주)의 후원을 받아 아동복지시설



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는 행복날개 유소년축구단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4월에는 저소득가정 어린이 50명과 함께 문화나들이를 실시해 어린이들의 견문을 넓혀줄 예정이다.

▲사회복지봉사활동 인증관리사업=사회복지 봉사활동 인증관리시스템 보급을 통해 체계적으로 자원봉사활동을 관리하는 한편 사회복지 자원봉사자에 대한 인증관리와 적절한 보상으로 인적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해 사회복지 자원봉사 활성화를 촉진시킬 계획이다.

▲자원봉사활동 육성·진흥사업=다양한 재가봉사활동 프로그램을 개발해 도민에게 다가서는 나눔활동으로 수눌음정신을 구현하고, 더 많은 도민이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확산시킨다는 방침이다.

대학생과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사회복지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참여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사회복지 자원봉사활동 UCC공모전'을 열고, 자원봉사자의 기본지식과 자원봉사활동요령 등을 담은 '동영상 길라잡이'를 제작·배포할 계획이다.

▲푸드뱅크=도민을 대상으로 식품나눔 운동을 전개해 꾸준한 기탁자를 발굴,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서비스를 확대하는 한편 제주지역에 맞는 푸드뱅크 운영시스템을 개발해 푸드뱅크를 활성화시킬 방침이다.

“자원봉사, 네이버 해피빈 이용하세요”

복지부-NHN-사회복지협, 자원봉사 일감나누기 협약

앞으로는 어떤 곳에서 자원봉사자의 도움이 필요한 지를 쉽게 알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12월 10일 한국사회복지협의회, NHN(주)와 '자원봉사 일감나누기' 업무협약을 맺고 네이버의 해피빈 코너를 통해 전국 어디에서 자원봉사를 필요로 하는지에 대한 정보를 네티즌에게 제공하기로 했다. <사진>



커뮤니티를 구성, 활동하면서 네티즌들을 자원봉사활동으로 이끌게 된다.

인증요원들은 자신이 속한 인증관리센터를 '해피빈'의 해피로그(happylog)로 등록해 자원봉사 일감 제공 및 자원봉사자 관리·교육 등을 담당하게 되며, 네티즌들은 인증요원이 만들어 놓은 '해피로그'에 자율적으로 참여하면서 정보가 제공된 봉사활동 일감 중 본인의 전문성 등 특성에 맞는 봉사 일감을 쉽게 찾을 수 있게 된다.

특히 NHN(주)는 사이버머니 '콩'을 자원봉사 네티즌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얻을 수 있도록 지원해 기부운동을 보다 활성화할 방침이다.

협약을 통해 NHN(주)는 네이버의 사회공헌포털 '해피빈'에 '해피빈 자원봉사 일감나누기' 코너를 마련하기로 했다. 해피빈은 NHN이 만든 온라인 기부단위인 콩은 한개당 100원의 가치를 지니고 있다.

복지부와 한국사회복지협의회는 사회복지봉사활동인증관리시스템(VMS)을 해피빈 자원봉사 일감나누기 코너와 연계해 전국 4926개 사회복지자원봉사인증센터에서 활동 중인 자원봉사 인증요원 1만2000여명이 자유롭게 '해피빈'에서

“자녀 양육·교육비 증가로 저출산”

현인숙 교수 '출산친화적 분위기 조성 포럼' 서밋해

제주도민들은 저출산의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 자녀 양육 및 교육비용의 증가를 꼽았다.

현인숙 제주한라대학교 교수는 제주특별자치도 주최로 12월 22일 제주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출산친화적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한 정책포럼'에서 만 20세 이상 도민과 임산부 등 85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567명(66.3%)이 이 같이 응답했다고 밝혔다.

이어 ▲결혼 및 출산, 자녀양육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 168명(19.6%) ▲여성의 직업 및 사회활동 증가 97명(11.3%) ▲과거 국가의 강압적인 인구정책의 영향 17명(2.0%) 등을 저출산의 원인이라고 응답했다.

자녀 양육 시 가장 어려운 점을 묻는 질문에는 응답자 844명의 절반 이상인 464명(54.3%)이 '보육(교육)비용에 대한 부담감'이라고 답했다. '안심하고 맡길 곳이 없다' 239명(28.3%), '배우자 및

가족의 협조 부족' 78명(9.2%), 긴급 시 도움 사립(시설)이 없다' 34명(4.0%) 등이 뒤를 이었다.

또 출산을 중단한 가장 중요한 이유를 묻는 질문에도 전체 응답자 839명 중 565명(67.3%)이 '자녀교육비와 양육비 부담' 때문이라고 응답했다. 75명(8.9%)은 '육아지원 시설·가족지원망 부족', 49명(5.8%)은 '실업 및 고용 불안정'이라고 답했다.

현 교수는 "자녀 출산 후 자녀양육 가정의 경제적·사회적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정책 지원과 환경조성이 선행해야 한다"면서 "자녀가 성장한 이후에 자녀 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재정적 지원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또 ▲신혼·예비부부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불임부부에 대한 지원 강화 ▲출산장려 대책 관리부서의 운영과 담당인력의 전문성 확보 등을 제안했다.



사회복지협의회 11월 후원금 현황

(단위: 원)

구분	후원금수입	후원금 사용내역	
		사용내역	금액
재가결연후원	950,000	재가결연대상자후원	4,333,000
난치병환아후원	220,000	난치병환아후원	0
복지사업후원	2,525,000	복지사업후원	352,850

* 후원자님들이 보내주신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시설탐방

(14) 제주케어하우스



웃음과 활기 넘치는 장애인 요람

중증장애인에게 맞춤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2007년 4월 문을 연 제주케어하우스(원장 권혁선), 연말 크리스마스행사 준비로 떠들썩하던 날, 제주시 영평동에 위치한 제주케어하우스를 찾았다.

중증장애인에 재활 등 맞춤형서비스 제공 “장애인에 활력 주는 새로운 도전 펼칠 것”

제주케어하우스는 중증장애인을 위한 복지시설로 1급 중증장애인에 대한 보호와 재활, 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설립됐다.

케어하우스에는 26명의 중증장애인들이 생활하고 있는데, 입소 장애인 대부분이 중도장애를 겪고 있다. 이 중 40~50대 성인장애인들이 80%를 차지한다.

케어하우스는 입소 장애인의 개별 장애정도와 욕구에 맞는 일상생활서비스 및 의료, 물리치료서비스 지원 뿐만 아니라 입소 장애인의 사회심리기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다. 특히 장애로 인해 활동의욕과 동기가 많이 저하돼 있는 장애인들에게 활력과 웃음을 찾아주기 위해 취미·여가활동 및 특기개발을 통해 자존감을 높여 주고 있다.

지난해 ‘생활시설 중도 중증장애인의 사회심리기능향상을 위한 멘토링 프로그램-새로운 나를 찾아서 떠나는 여행’을 1년간 진행한 김지선 사무국장은 “이 사업을 통해 입소 장애인들이 지역장애인들과 결연을 맺어 활동하면서 장애를 좀 더 긍정적으로 수용하게 되고 더 의욕적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말했다.

매월 열리는 행복플러스 프로그램에서는 웃음이 넘치

는 행복한 케어하우스를 만들어 가기 위해 입소 장애인과 직원이 참여해 개선하고 노력해야 할 점에 대해 서로 이야기를 나누며 시설운영과 생활에 있어 입소 장애인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지난해 3월에는 경쟁력을 갖춘 시설로서 존립기반을 단단히 하기 위해 제주에서는 사회복지기관 최초로 뉴패러다임을 도입했다. 3개월여에 걸쳐 수행된 ‘미래 찾기’ 컨설팅은 기존의 틀에 박힌 시설의 분위기를 지양하고 입소 장애인과 그 가족은 물론 직원이 보다 밝은 미래를 찾기 위해 추진돼 미션·비전의 수립과 평생학습체계를 수립하는 성과를 이끌어냈다.

올해에는 공동모금회에서 후원하는 ‘생활시설 입소장애인 가족의 긍정적인 관계형성을 위한 역할지원프로그램-사랑의 가족-’과 한국마사회 제주본부에서 후원하는 ‘생활시설 중증장애인의 올바른 여가선용 및 활력증진을 위한 취미·여가활동지원-행복한 일상 속으로-’ 사업이 추가로 진행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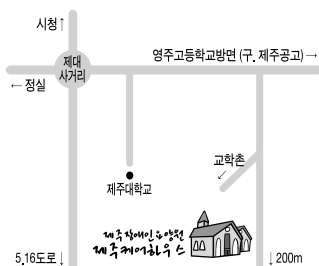
김 국장은 “대부분이 일상



생활을 하다가 불의의 사고로 인해 장애를 입어 입소한 경우가 많아 입소 초기에는 가족·사회로부터의 소외감과 부적응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다”면서 “여러 가지 활동들 속에 점차 웃음과 활력을 찾아가는 입소 장애인들을 보면서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권혁선 원장은 “올해에는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강화하고, 다양한 활동자원을 통해 입소 장애인의 삶의 활력을 높일 수 있도록 남다른 시각을 갖고 새로운 도전을 펼치고자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702-9423~4, <이소영 명예기자>



제장복, 4회 연속 전국 최우수 복지관

사회복지법인 춘강이 운영하는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이동한)이 4회 연속 전국 최우수 장애인복지관으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제주도장애인복지관은 보건복지가족부가 전국 120여개 장애인복지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2008년 사회복지시설평가에서 전국 최우수 장애인복지관에 선정됐다.

제주도장애인복지관은 ▲직원의 전문성 ▲복지관 시설의 환경 ▲복지관 이용자의 만족도 ▲복지서비스의 질에 관한

사항 등 모든 부문에서 골고루 높은 평가를 받았다.

복지부는 평가결과를 토대로 지역별 등급 및 순위를 공개해 바꾸쳐 이용정보로 활용하고, 우수시설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을 강화하는 한편 각 사업팀·지자체 등의 표창대상자, 사업비 배분 대상자 선정 등에 활용할 예정이다.

한편 복지부는 모든 사회복지시설에 대해 3년마다 1회 이상 평가를 의무화하고 있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1999년부터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김혜자 도의원 장애인정책 ‘최우수’

고봉식·오종훈 의원 ‘우수’

(사)제주장애인인권포럼은 2007~2008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정활동을 모니터링한 결과 민주노동당 김혜자 의원(사진 위)을 최우수위원으로 선정했다. 한나라당 고봉식(사진 가운데)·오종훈 의원(사진 아래)은 우수위원으로 선정했다.

지방의회 의정활동 모니터링은 (사)한국장애인인권포럼(대표 이범재)과 제주지역 모니터링단(단장 최희순)이 보건복지가족부의 후원으로 실시됐다.

제주 권역은 2007년 7월 1일부터 지난해 6월 30일까지 제주도의회 회의록을 중심으로 총 160건의 장애인관련 질문을 수합해 이 중 97건을 모니터링했다.

의원들의 발언 성격을 ▲단순질의 ▲현황파악질의 ▲문제 제기 및 지적 ▲정책적 대안제시 등 4가지로 분류하고, 정책접수는 ▲구체성 ▲전문성 ▲달성가능성 ▲적정성 ▲지방자치성 등 5가지로 분류해 평가했다.

모니터링 결과 최고 평점척도인 ‘정책적 대안제시’는 13.4%로, 다른 광역의회에 비해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제주도 의원들의 분야별 발언을 보면 장애인복지 일 반 (31.9%) 과 접근 이 동 권 (25.1%) 등에 대 해 서 는 관 심 이 높은 반 면 ▲자 립 생 활 (4.2%) ▲여성 장 애 인 (2.0%) ▲장애 인 특 수 교 육 · 평 생 교 육 (3.0%) 등은 상대적으로 이슈와 관심에서 벗어나 있었다.





한편 제주지역 모니터링단은 12월 12일 파라다이스 회관에서 이범재 한국장애인인권포럼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08년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정책 의정활동 모니터링 우수의원 시상식 및 보고대회를 개최했다.

2008년 제주특별자치도 복지행정 ‘호평’

지난해 제주특별자치도 복지행정이 각종 중앙단위 분야별 평가에서 총 12회 수상하는 등 좋은 평가를 받았다.

수상 현황을 보면 전국 저출산 고령사회 정책 성과 평가에서 최우수를 받았으며, 장애인복지 인권수준 평가에서는 2007년 2위에서 지난해에는 최우수 기관의 영예를 안았다.

특히 지자체 복지정책 의료급여 평가에서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3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노인복지 분야에서는 독거노인생활관리사 파견사업 평가, 노인일자리아업 평가 등 5개 부문에서 우수 평가를 받았다.

청소년복지 분야에서는 전국 청소년상담자대회와 우수 청소년활동센터 평가에서 제주특별자치도청소년상담센터와 제주특별자치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가 각각 우수상을 수상했다.

제주도는 올해에도 다양한 시책으로 ‘행복과 감동을 주는 건강복지사회’를 실현시켜 나간다는 방침이다.

“내 자신이 소중한 존재란 걸 깨달아”

제주에덕의집, 부적응 청소년 대안교실 호응

제주에덕의집이 2005년부터 제주도교육청의 위탁을 받아 운영하고 있는 학교 부적응 청소년들을 위한 대안교실이 학교와 학부모 등으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

대안교실에 참여한 학생들은 5박 6일 동안 학교를 떠나 제주에덕의집에서 장애인들과 함께 생활하게 된다. 이 과정에 참여한 학생들은 자신이 신체적으로 건강하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감사하고, 부모님에 대한 고마움, 부정적이고 비관적인 모습들에서 주위의 작은 것들에 대한 소중함을 느끼게 된다. 또한 성격검사 및 상담, 자기이해 프로그램 등을 통해 자신에 대한 이해를 도우며, 자신의 꿈에 대해서 생각하는 프로그램들을 체험하게 된다.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중·고등학교 청소년 102명이 대안교실에 참여했다.

제주에덕의집 이대원 원장은 “높은 곳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는 현대 사회에서 입시위주의 교육에 적응하지 못하고 방황하며 물질만능의 환경과 퇴폐적이고 향락적인 놀이문화에 빠져 삶의 방향을 상실해 가는 청소년들에게 장애인들과의 만남을 통해 자존감과 미래에 대한 희망을 찾도록 도와주고 싶었다”고 취지를 밝혔다.

이 프로그램에 참가했던 한 학생은 “처음엔 정말 속이 매스껍고 얼굴을 쳐다보는 것조차도 힘들어 눈물만 나왔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말도 못하고 혼자서는 밥조차도 먹지 못하는 언니, 오빠들이 늘 행복한 미소로 기쁘게 생활하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지를 느끼게 됐고 나 자신이 아주 소중한 사람이란 것도 알게 됐다”면서 “이젠 정말 열심히 공부하고 착한 학생이 되겠다”고 했다.



△제주에덕의집이 운영하는 대안교실에 참여한 학생과 생활인들이 그림을 그리고 있다.

“수능 잘 봤다며 눈물을 글썽이며 어머니와 함께 생필품과 과자를 사 가지고 다시 찾아와 모두를 감동시켰던 한 남학생은 크리스마스 이브에도 케이크를 사들고 친구들과 또 방문해 성탄절 행사를 함께 했다. 한편 제주에덕의집은 12월

6일 개원 5주년을 맞아 그동안의 자취를 정리하면서 보다 나은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대안교실에 참여했던 위탁 학생들의 일지와 소감문을 모은 ‘대안교실 소감 모음집’을 발간했다.

〈현경애 명예기자〉



지적장애인 겨울캠프 실시

서귀포시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임대봉)은 11월 27~28일 휘트니스타운에서 지적장애인과 자원봉사자 등이 참가한 가운데 지적장애인의 체력 증진 및 정서함양을 위한 ‘우리만의 겨울이야기’ 겨울캠프를 실시했다.

지적장애인들은 1박 2일간의 겨울캠프에서 카트·썰매체험과 도내 관광의 문화활동 등을 통해 단체생활에서의 규칙을 익히고 동료에 및 사회성을 기르는 기회가 됐다.



서해안 사회적응·직업체험

가롤로의집은 생활인 강영식 씨 등이 참가한 가운데 11월 10일부터 3박 4일간의 일정으로 서해안 사회적응·직업체험 프로그램을 실시했다.

참가자들은 죽전직업재활원과 은평전사원 등 우수 직업재활시설을 둘러보고, 직접 도자기를 빚고 천연비누를 만드는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체험했다. 또 직업재활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장애인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며 직업재활의지와 자립의지를 키우는 계기도 가졌다.

가롤로의집은 이번 직업체험은 그룹홈(공동생활가정)에 진출하기 위한 준비과정으로 소그룹을 형성해 실시했다고 밝혔다.

친환경농산물품질관리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친환경농산물표시

종 명 : 감귤 (노지, 비가림)
 인증번호 : 제 18-01-1-10호
 생산자 : 화남농업연타농협에서 최명열
 주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회복동 5625-8번지
 전 화 : 064-723-9104
 팩 스 : 064-723-9105
 홈페이지 : www.jbaumto.net
 인증내용 : 화학비료와 농약을 사용하지 않고 재배한 농산물임.

산지 : 제주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일배움터, 유기농감귤 판매

작업활동센터 일배움터는 장애인들이 직접 생산한 유기농 감귤을 판매하고 있다.

일배움터 유기농 감귤은 당도가 13브릭스 이상으로 맛이 좋을 뿐만 아니라 농약 등을 전혀 사용하지 않은 친환경 농산물로써,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부터 유기농산물 인증을 획득했다. 이 감귤은 선과기를 거치지 않고 장애인들이 정성스럽게 일일이 포장해 판매하고 있다. 판매 문의=723-9104.

소/식/마/당

SK텔레콤 제주사랑봉사단제주보육원 후원



SK텔레콤 제주사랑봉사단(단장 나원흠)은 12월 11일 제주보육원을 찾아 200만원 상당의 생활용품과 후원금 300만원을 전달했다.

2006년 제주보육원과 자매결연을 맺은 SK텔레콤 제주사랑봉사단은 월 1회 이상 아동들과 아외 나들이 활동을 비롯해 미술활동과 도자기 만들기, 토 피어리 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인연을 이어왔다.

가스안전공사, 아가의집에 후원금 지원



한국가스안전공사 제주지역본부(본부장 박태일)는 이웃 사랑과 나눔을 실천하기 위해 12월 23일 혜정원 아가의 집을 찾아 후원금을 지원하고 봉사활동을 벌였다.

한국가스안전공사 제주지역본부는 해마다 아가의집을 방문, 가스점검과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한라적십자봉사회 장학금 수여



한라적십자봉사회(회장 김민성)는 12월 13일 대한적십자사 제주지사에서 창립 20주년 기념행사를 열었다.

2006년 제일지역아동센터(원장 박영식)와 인연을 맺은 이후 다양한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는 한라적십자봉사회는 이날 행사에서 제일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 중 학업 성적이 우수하고 성실한 모범 아동 1명을 선정, 장학금과 장학증서를 수여했다.

독거노인 3가구에 보금자리 마련



보은의집·실버하우스·나눔사랑센터는 10~11월 제주시 오라동과 삼도동 지역 혼자 사는 노인 3가구를 대상으로 사랑의 집수리 공사를 벌여 따뜻한 보금자리를 마련해 줬다.

보은의집 등은 지역에 살고 있는 노인도 한가족이라는 이념을 토대로 지역 사회 발전에 앞장서고 있다.

자원봉사자·후원자 만남의 날



창안재활원(원장 박광수)은 12월 6일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자원봉사자와 후원자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자원봉사자 및 후원자를 위한 만남의 날’을 개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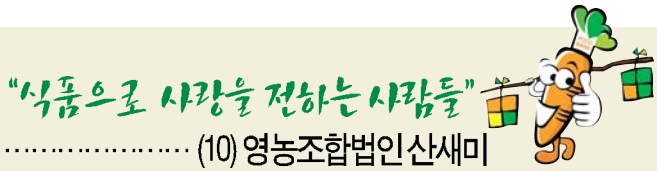
이날 행사에서는 후원자와 자원봉사단체에 감사패를 전달했으며, 댄스스포츠와 웃음치료, 휠체어댄스 등 다채로운 공연이 이어졌다.

2008 사랑의김치축제 개최



서귀포종합사회복지관(관장 송옥희)은 12월 15~16일 남제주화력발전소와 영남도민회의 후원을 받아 2008 사랑의 김치축제를 개최했다.

남제주화력발전소 한마음봉사단과 영남도민회, 징검다리봉사회원들은 직접 김장을 담가 서귀포시 관내 저소득 가정 100가정에 전달하는 등 지역 이웃들의 따뜻한 겨울나기에 동참했다.



“나누는 기쁨 알 수 있어 행복”

“많이 받는 만큼 더 많이 나누는 기쁨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에는 그러한 나누는 기쁨을 모르는 사람이 많아서 아쉽습니다.”

영농조합법인 산새미(대표 이정순)는 올해 초 제주도 푸드뱅크와 인연을 맺은 이후 지금까지 계속 나누는 기쁨을 함께 하고 있다. 산새미는 제주도 애월읍 수산리에 위치한 제주 말고기 및 건강식품과 가공식품을 생산하고 있는 업체이다.

어떻게 푸드뱅크와 인연을 맺게 되었는지를 묻는 질문에 이정순 대표는 “그냥 동네 어르신들에게 작지만 엑기스나 분말, 과자종류의 건강식품 등을 지원하다가 지금 여기까지 오게 됐다”고 나직이 말했다.

또 제품을 생산하는 단계에서부터 푸드뱅크에 지원할 부분을 미리 계획해 생산을 하고 있어 남다르게 일할 수 있다고 했다.

“푸드뱅크에 지원하는 것에

큰 장애물은 없으나, 다만 한 가지 생산품 포장비에 있어서 약간의 어려움은 있다”는 이 대표는 그러나 “물품으로 전하는 사랑이지만 이러한 작은 사랑들이 모여 ‘희망’이라는 큰 사랑의 탑을 쌓듯 이 추운 계절을 이기는 가장 큰 에너지는 나눔과 같은 사랑의 실천”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올해에도 나누는 기쁨에 계속적으로 동참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명자 명예기자〉

11월식품기탁자 명단·수량

- ▲ SMC던 킨도너츠=도넛류 7225개 ▲ 명당양과(신제주점)=빵류 800개 ▲(주)금강축산유통=육류 120kg ▲CJ(주)=양념류 8897개 ▲(주)오투기=부식류 552개 ▲(주)롯데칠성=음료류 7788개 ▲(주)롯데제과=과자류 1577개 ▲(주)대상=식재료 608상자 ▲패밀리마트=부식류 15상자 ▲떡마을=떡 40kg ▲제주민속떡집=냉동떡 40kg ▲신화유통=김 4480개 ▲농림수산부=수산물 2750kg ▲가천재단=쌀 160kg



한라산·덕산 등 사랑의 손길

경기침체로 모두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도내 기업들이 어려운 이웃에게 따뜻한 나눔을 전하고 있다.

(주)한라산(대표이사 현승탁)은 12월 10일 제주특별자치도청을 방문, 기업이익의 사회환원 차원에서 성금 5000만원을 기탁했다.〈사진 위〉 기탁한 성금은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도내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사용된다.

해마다 제주도공동모금회에 기탁을 하고 있는 (주)한라산은 2007년 1월 1일부터는 제주도공동모금회와 협약을 통해 한라산 소주병에 ‘사랑의 열매’ 로고를 사용, 판매액의 일부를 적립하고 있다.

또 (주)덕산의 강덕주 회장 부자도 어려운 이웃을 돕는데 써달라며 1억원을 쾌척했다.〈사



진 아래)

강 회장과 강 회장의 차남인 강인귀 해양종합건설(주) 대표이사는 12월 16일 제주도청을 찾아 각각 5000만원씩 1억원을 기부했다. 일반토종기업으로 한번에 1억원의 기부는 현재까지 가장 큰 기부액으로 기록됐다.

해바라기지역아동센터 작품전시회

해바라기지역아동센터(대표 황호민)는 ‘나를 찾아 떠나는 희망 프로젝트-저소득 아동들의 자아존중감 향상을 위한 독서통합놀이’ 사업의 일환으로 아동들이 활동해 온 작품을 모아 작은 전시회를 12월 23일부터 26일까지 개최했다.

해바라기 작품전시회는 아동들의 자아존중감 향상과 학부모, 지역주민들에게 지역아동

센터의 역할을 홍보하기 위한 자리다.

작품전시회는 일년 동안 독서통합놀이에서 함께 한 독서활동 자료를 전시하고, 생태체험과 독서캠프 사진전을 함께 했다. 또 지역아동센터 아동들이 미술활동의 결과로 만든 미술작품과 생활용품을 전시·판매했으며, 수익금은 아동들을 위한 도서구입비에 사용된다.

아동권리 희망릴레이 캠페인 전개

제주시자원봉사센터 최우수

서귀포시아동보호전문기관(관장 김운영)은 11월 20일 서귀포시사회복지협의회(위원장 고치환)와 함께 UN아동권리주간(11월 17~22일) 및 세계 아동학대 예방의 날(11월 19일)을 기념해 중문관광단지 내 테디베어박물관 앞 광장에서 아동권리 희망릴레이 캠페인을 펼쳤다.

이날 캠페인에서는 시설아동, 교육시설 종사자, 시민 등 10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사진으로 보는 아동권리’ 사진전, 노란 리본 달기, 아동지킴이 서명운동, 희망나무 만들



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서귀포시아동보호전문기관은 이번 캠페인을 통해 서귀포지역 내 아동학대 예방은 물론 아동 권리신장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제주시 자원봉사센터(센터장 이상호·사진)가 2008년 행정안전부 평가에서 최우수 자원봉사센터로 선정돼 장관 표창과 상금 300만원을 수상했다. 최우수센터 선정은 2006년에 이어 두번째다.

제주시자원봉사센터는 이번 평가에서 운영관리 및 인프라 구축에서 좋은 점수를 받았다.

특히 인적자원을 기반으로 독거노인문스톱지원센터를 운영하면서 행정이 다하지 못하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해 복지사회안전망을 구축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지난해에는 혼자 사는 노인 수연회와 장애인·독거노인·자원봉사자와 함께 하는 으뜸트래킹 프로그램이 창의적인 프로그램으로 인정받았으며, 기관·단체·업체 부서단위별 업무협약 체결로 자원봉사문화를 활성화시켰다.

한편 제주시자원봉사센터에는 383개 단체가 등록돼 자원봉사자 2만8300여명이 활동하고 있다.



행복 쭉쭉 ‘희망날개 달아주기’

제주가정위탁지원센터(소장 강철남)는 제주도교육청에서 주관하는 ‘교육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을 통해 도내 교육환경이 어려운 위탁아동을 대상으로 경제교육, 진로탐색, 방문학습, 멘토와 함께 하는 나들이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했다.

특히 주 1회 대학생 자원봉사자가 가정을 직접 방문해 공부에 도움을 주는 방문학습을 통해 아동들은 학습에 흥미를 갖게 됐고, 성적이 눈에 띄게



향상되는 등 아동과 양육자들에게서 호응을 얻었다.

이번 교육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은 지난 9월부터 연말까지 이뤄졌으며, 20여명의 대학생 자원봉사자들이 바쁜 시간을 쪼개 도움을 줬다.

혼자 사는 노인 따뜻한 겨울나기 지원

서귀포일터나눔지역자활센터(센터장 임철남) 부설 서귀포시 독거노인 One-Stop지원센터는 12월 17일 서귀포시 내 혼자 사는 노인에게 대한 김장김치 나눔행사와 함께 난방지원 사업을 실시했다.

김장나눔행사에서는 일터나눔지역자활센터 노인밀반찬배달사업팀(한아름가득) 팀원들과 독거노인생활관리사가 직접 김장담그기에 자원봉사자로 나서 성산읍, 대정읍, 동홍동 등 3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돼



관내 독거노인 400여명에게 김장김치를 전달했다.

또 겨울철 난방시설이 열악한 혼자 사는 노인에게 대한 실태 파악과 함께 보일러 청소와 난방매트 지원 등의 난방지원사업을 진행했다.

새터민 사회적응 향상 프로그램 실시

아라종합사회복지관(관장 고두승)은 제주에 정착해 살고 있는 새터민들의 자립능력과 삶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지난 5월부터 새터민 사회적응 향상 프로그램을 실시했다.

아라복지관은 교육과 제주문화탐방 등을 통해 새터민들의 사회적응 향상을 비롯해 새터민 서로간에 친밀감을 형성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또 동절



기를 맞아 새터민 가족들이 함께 모여 김장김치를 담그고 나누며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배울 수 있는 장도 마련했다.

칼럼

통합과 관용으로 건강한 사회를 열자



김범훈
제주일보논설위원

소의 해 기축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오늘 원단(元旦)을 맞는 의미는 각별합니다.

무릇 새로 시작하는 시간의 질서는 우리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안겨줍니다. 무엇을 속아내고 버릴 것이며 무엇을 키우고 이어갈 것인지를 마음속에 새롭게 설계하는 기회를 제공해주기 때문일 것입니다.

팍팍한 현실로 내몰린 서민들

나름대로 스스로를 움아베던 세속과 번뇌의 일상에서 벗어나 과거와 현재, 미래에 대한 사색과 성찰을 해보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새해 아침은 더 없이 소중한 것입니다.

생각하면 지난해는 모두에게

매우 힘든 한 해였습니다. 대부분 언론사들이 국내의 가장 큰 뉴스로 경제위기를 꼽았다는 사실 하나가 이를 대변하고도 남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 경제는 지난해 9월 미국에서 시작된 글로벌 금융위기가 세계로 번지면서 급속하게 불황의 긴 터널에 접어들었습니다. 성장률이 곤두박질치고 소비심리는 꽁꽁 얼어붙고 있습니다. 대학을 나온 젊은이들은 일자리를 얻지 못한 채 거리를 방황하고 있습니다. 서민들의 삶은 이미 파란 비탈길로 내몰리고 눈물의 계곡에 빠져드는 상황입니다.

우리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분야가 마치 모래성 위에 자리한 듯한 자괴감을 깊게 느낍니다. 근본적인 이유는 사회의 근간을 이루는 신뢰의 상실 때문입니다. 이러면 민주주의의 토대는 물론 우리의 소중한 가치인 공동선이 무너질 가능성이 큼니다.

이렇듯 한국사회는 미증유의 과제와 도전적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무엇보다 올해 우리경제가 마이너스 성장을 할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제통화기금의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대공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까지 경고했습니다. 2009년 새해

가 더 큰 문제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현실이 아무리 어렵다 해도 우리는 희망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 인식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따뜻한경제 햇살 곳곳 비추길

중요한 것은 통합과 소통의 리더십입니다. 그리고 상대를 인정하고 너그럽게 받아들이는 관용이 절실한 새해입니다.

사회 전 분야에 투명성과 공정성이 담보되고, 법치와 민주주의가 정상 작동돼야 선진사회입니다. 그 핵심 전제는 지도자와 사회 지도층의 신뢰구축 노력일 것입니다. 그래야 상대적 약자인 시민들은 당장 먹고 살기 어렵지만 어떻게든 인내하며 열심히 땀 것입니다.

풍요를 불러오고 화를 막아주는 소의 해, 우리 모두는 난국을 이겨내고 다시 우뚝 설 수 있을 것입니다.

동북아 국제자유도시를 지향하는 제주특별자치도민들은 이러한 내공이 있다고 믿습니다.

모쪼록 새해는 성장과 분배가 함께하는 따뜻한 경제의 햇살이 제주사회 곳곳을 비추기를 기원합니다.

시론

희망을 나누는己丑年이 됐으면



한영조
제주경실련 사무국장

다사다난했던 2008년이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기축년 새해가 밝았다. 새해에는 경제가 더 어려워질 것이라는 보도가 연일 신문지면을 장식하고 있다. 미국발 금융위기로 촉발된 경제공황이 세계경제를 뒤흔들면서 한국경제도 예외일 수 없다. 가뜰이나 수출 주도형인 우리나라 경제에는 치명적이다. 경제 한파가 우리를 향해 엄습해 오고 있다.

헌신적인 사회복지 종사자에 박수를

기업이 쓰러지고 부실은행이 발생하고 실직자들이 급증하고 있다. 일자리가 없어 놓고 있는 청년실업은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다. 고용사정은 더 심각한 상황으로 빠져들고 있다. 신규 취업자는 2007년 28만명에서 2008년에는 14만명으로 반도막이 났다. 올해에는 부실기업 구조조정 등으로 신규 취업자는 4만명선으로 추락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한 해 배출하는 55만명의 대학 졸업자 가운데 4만명만 일자리를 구하고 51만명은 백수신세가 된다는 것이다. 이 얼마나 참담하고 암담한 일인가.

이 뿐만이 아니다. 한국은행은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2%에 그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정부는 3%의 목표를 내세우고 있지만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이를 곧이곧대로 믿지 않는다. 일부 민간 경제연구소들은 마이너스 성장을 전망하고 있을 정도이다. 그렇다고 이번의 경제위기가 언제까지 어느 정도로 확대될 지 그 누구도 명쾌한 해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그러는 사이 가장 먼저 고통의 타격을 받는 곳은 항상 그래왔듯이 취약계층이다. 신용능력이 약한 중소기업, 자영업이 흔들리고 정리가 용이한 비정규직으로부터 실직자가 늘어난다. 가계소득이 줄어들게 되면 빈곤층부터 가계파탄이 일어난다. 10년 전 외환위기 때 혹독한 경험을 한 우리에게는 그리 낯선 일이 아닌지도 모른다.

그런데도 한편에서는 우리를 슬프게 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가장 모범을 보여야 할 도내 공직자들이 각종 비리로 지난 한해를 가득 매웠다. 공문서를 거짓으로 작성해 재난기금을 빼돌리거나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한 금품수수 등 공직자 부패 사례가 꼬리를 물고 터져 나왔다. 그 결과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청렴도 측정 평가에서도 그대로 드러났다. 제주도가 전국 꼴찌를 기록하는 불명예를 안은 것이다.

그러나 우리 주변에는 이처럼 나쁜 일만 있는 것은 아니다. 사회 곳곳에는 굿은 일도 마다하지 않고 묵묵히 헌신적으로 봉사하는 사람들이 있기에 희망이 있다. 사회복지법인 소속 한 분은 기부와 관련해 도내 최초로 큰 상을 수상했음에도 이를 세상에 알리기를 극구 사양하는 모습에서 숙연함마저 느끼게 한다. 특히 사회복지 일선에서 일하는 이들의 노력이야말로 우리 사회를 밝게 만들어 주는 등불이다.

새해는 경제난이 더 심각해질 것이라는 전망 속에 사회복지시설의 손길은 더욱 바빠질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인지 나눔 위해 묵묵히 따뜻한 손길을 나누는 이들이 더없이 고마움으로 다가오고 있는지도 모른다.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말인 '나눔'을 실천하는 이들이 사회 곳곳에 있기에 2009년 때서운 경제 한파 역시 따뜻한 희망의 빛으로 눈부시게 할 것이다. 다시 한 번 사회복지시설에서 일하는 모든 이들에게 박수를 보낸다.

기고

결혼이민자들에 대한 시각을 바꾸면



김정림
제주다문화가정센터 교육팀장

시집 온 지 8년째 되는 필리핀 결혼이민자 친구가 있다. 물론 국적도 땀고 아들 딸 낳고 남부럽지 않게 살고 있다. 하지만 친구한테는 8년 동안 말 못할 고민이 있다. 검은 피부색과 아직도 발음이 잘 안 되는 한국말, 주위에서는 늘 필리핀여자라고 부른다. 버스 안에서 한국인들은 서 있으면서도 친구 옆에는 앉지를 않는다. 나와 같은 황인종 중국 결혼이민자나 베트남 결혼이민자들이 부럽단다.

중국 연변에서 시집 온 아는 동생이 있는데, 시댁에서는 중국에서 시집 왔다 하지 말고 강원도 시골에서 왔다 하라고 강요한다

다. 또 한 친구는 동네에서 충격적인 말을 들었다 한다. 지나가던 아줌마들이 '재는 얼마를 주고 사왔냐?' 라는 말에 친구는 밖에 나가 사람을 만나기가 무서워졌다 한다. 이처럼 한국사회는 혈통주의, 민족주의가 강한 나라이다. 하지만 미국이나 유럽, 호주와 같은 나라에서 온 외국인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도대체 왜일까?

나도 중국 조선족 결혼이민자이지만 모순될 때가 많다. 어린 시절 중국에서 학교 다닐 때 고려인 후손이라고 동네 중국 애들한테 왕따 당하던 아픈 기억이 지워지지 않는다. 나라가 없는 애들이라고 놀림 당하고 외로워서 어린 나이에 눈치 보는데 습관이 된 우리 조선족, 하지만 한국에 오면 우릴 중국인이라고 한다. 혈통주의가 강한 한국인들은 우릴 인정해주지 않고 중국은 우릴 고려인 후손이라고 소수민족이라 부르며 배척한다. 그렇다면 나의 정체는 뭐지? 정체성에 대한 혼란은 한국에 시집 와서 지금까지 쭉 이어져왔고 영원히 안고 가야 할 과제다.

결혼이민자들은 엄청난 문화적 차이와 갈등을 체험해야 한다. 외

로움, 우울증, 두려움... 그 중에서도 시댁과의 어려운 소통으로 많은 심리적 고통을 겪는다. 특히 이해하기 어려운 사투리와 높은 목소리 때문에 시어머니가 항상 화내고 있다고 오해하는 결혼이민자들이다. 또 밖에 나가면 도망가는 줄로만 알고 한글을 배우고 싶지만 보내주질 않는다. 물론 도망가는 사례가 가끔 발생하여 시름을 놓지 못하는 줄은 알지만 소수로 다수를 부정해서는 안 된다.

많은 사람들은 결혼이민자들에 대해 친화적이다. 하지만 아직도 존재하는 싸늘한 시각들, 말로는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복잡한 우리 결혼이민자들의 심정... 우리들도 얼마, 아내, 며느리로서 이 사회에 적잖은 공헌을 하고 있지만 이런 공헌보다는 부정적인 이미지가 우리들한테 더 큰 작용을 하고 있다.

우리는 제2의 인생을 한국이라는 나라를 선택하고 무진 애를 쓰며 이 사회에 적응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관심과 사랑으로 다문화사회를 이해하고 고정관념을 버려야 더 융합되고 강성한 세계대국으로 성장할 것이다.

2009년 달라지는 복지시책

수요자 중심 '희망복지' 전달체계 개편



올해부터 시행될 달라지는 사회복지시책에 대해 공통분야, 저소득층 복지, 출산친화적 사회 조성, 청소년, 노인, 장애인, 아동보육, 보건·위생분야로 나눠 소개한다.

공통분야



사회복지사 8시간 이상 보수교육 받아야

수요자 중심의 '희망복지' 전달체계가 개편돼 행정시에 민·관 합동으로 희망복지지원단을 설치한다. 상반기 중 전국 10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시범 운영을 거쳐 하반기에 전국적으로 확대된다. 희망복지지원단에서는 보건, 복지, 고용서비스의 원스톱 제공

과 안정적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상자들을 집중보호하게 된다. 사회복지법인이나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에 대해 정기적인 보수교육이 실시된다. 대상자는 연간 8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받아야 하며 보수교육을 받지 않거나 보수교육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분을 한 경우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청소년복지분야



동선면 등에 청소년문화의집 개관

서귀포지역 위기 청소년의 편의 및 실효성 있는 서비스 제공을 위해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이 확대되고, 위기 청소년의 적응력 향상과 자립을 위한 맞춤형

형 서비스 제공으로 실질적인 자립 준비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읍·면지역 청소년들을 위한 청소년문화의집이 추가로 한림읍과 표선면에 상반기 중 문을 연다.

저소득층복지분야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선정기준 완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선정을 위한 최저생계비가 지난해보다 5% 인상된 132만 7000원(4인 기준)으로 기준이 완화되고, 현금급여 최고한도액도 110만5000원으로 4.3% 인상돼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에 도움을 주게 된다. 또 출가한 자녀, 이혼, 사별한 자녀의 집에 거주하는 부모가 생활이 어려운 경우 읍·면·동을 방문해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신청을 하면 자식들의 부양능력여부, 소득 등 최저생계비 기준을 초과하지 않을 경우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책정, 보호를 받게 된다. 차상위 의료급여 지원, 자활사업 참여, 한부모가정, 장애수당, 보육료 지원 등의 복지급여를 받고 있는 차상위계층에 한해 정부양곡 50% 할인 지원기간이 3개월에서 연중 구입 신청할 수 있도록 기간이 확대된다.

장애인복지분야



'보이스아이' 시스템 도입

문자를 음성으로 읽어주는 '보이스아이' 시스템을 도와 행정시에 구축해 각종 고지서와 공문서 등을 발급하게 되며, 시각장애인복지관을 비롯한 장애인 종합복지관 및 단체에 '보이스아이' 리더기를 보급, 문자를 음성으로 읽을 수 있도록 해 시각장애인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할 수 있게 된다. 지난해 장애인 편의시설 전수조사 결과를 토대로 공공기관, 관광지, 음식점, 영화관 등 장애인 편의시설 안

내를 표기한 지도를 사이버 공간을 이용해 안내한다. 장애인복지일자리 192명, 장애인 행정도우미 지원 47명에게 일자리를 마련, 장애인들에 대한 일자리 사업을 확대 추진한다. 만 18세 미만의 뇌병변, 언어, 청각, 시각, 지적, 자폐성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성장기 장애 아동의 기능 향상과 행동발달을 위해 저소득 가정을 위주로 재활치료 비용의 일부인 월 20만원 상당의 재활치료 바우처를 지원하는 사업이 실시된다.

출산친화적 사회 조성분야



둘째 낳아도 출산장려금 지원

다자녀 가정 우대 '제주아이 사랑행복카드' 발급 대상 기준이 3자녀 이상 가정 중 막내가 만 15세 미만인 가정 또는 셋째아 이상을 임신한 가정으로 변경된다. 이 카드를 소지한 사람이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운영하는 체육시설을 이용할 경우 사용료 50%가 감면

되며, 3자녀 이상 가정으로 18세 미만의 직계비속을 셋 이상 양육하는 사람이 자녀 양육용으로 취득하는 1차량에 대해 취득·등록세 50%를 감면한다.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을 위해 둘째 출생아 10만원, 셋째 출생아 50만원, 넷째 이상 출생아 100만원으로 확대 시행된다.

아동보육분야



7월부터 무상보육 대상 확대

7월부터 무상보육 대상을 도시근로자가구 월 평균 소득 50% 이하까지로 확대해 대상기구의 아동에 대해 보육료 전액이 지원된다. 또 민간보육시설에 지원되던 기본보조금이 보육료로 통합되면서 민간보육시설 이용 아동중 만 0~2세 아동에 대해 연령별 차등 보육료를 3월부터 지원한다.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차상위 계층 기구의 만 0~1세 아동에 대해 매월 10만원의 양육비를 7월부터 지원한다. 7월부터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의 보호자에게 i-사랑카드를 발급해 아동 보호자가 보육료를 결제하는 방식으로 지원체계가 개선된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에게 지급되는 아동양육비(월 5만원)의 지원대상이 만 10세 미만으로 확대된다.

노인복지분야



경로당 냉방비 20만원 지원

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월 소득인정액이 노인 단독인 경우 월 68만원 이하, 노인부부인 경우 108만 8000원 이하로 상향 조정된다. 1인당 지급액은 노인 단독인 경우는 월 2만원~84만원을, 노인부부인 경우는 월 4만원~134만원을 지급한다. 2월부터는 '노인 소비자 권익보호 대책'을 본격 추진, 노인대상 불법·부당 판매행위로 피해를 입은 노인은 경로당, 노인복지관, 행정시,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민간 소

비자단체, 경찰청 등 다양한 신고창구를 이용해 보다 쉽고 빠르게 신고하고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다. 하반기부터 장기요양수급자 중 건강보험 하위 저소득층에 대해서도 서비스이용 본인부담이 50% 경감된다. 경로당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 경로당 운영비와 난방비를 10% 인상해 지원하고, 노인의 접근성이 가장 용이한 경로당을 폭염시 부대위험터(쿨링센터·cooling center)로 지정·운영하기 위해 경로당 냉방비 20만원을 지원한다.

보건·위생분야



예지식물원 등에서 담배 못피

도민과 같이 하는 지속가능한 건강도시를 만들기 위해 건강거리(실외금연구역)가 제주공룡랜드, 제주조각공원, 소인국테마파크, 김녕미로공원, 제주미니랜드, 여미지식물원, 비지림, 정방폭포, 주상절리대, 산방산 등으로 확대 지정돼 시행된다. 응급심장질환, 응급뇌질환, 중증의 외상 등 3가지 질환에 대해 응급뇌질환 전문 응급진료는 제주한라병원, 응급심장질환과 중증의 외상은

제주대학교병원 등 중증응급질환전문체계를 구축해 24시간 전문적인 진료가 가능해진다. 담뱃갑 포장지 등에는 경고문구 외에 '담배연기에는 발암성 물질인 나프틸아민, 니켈, 벤젠, 비닐 크로라이드, 비소, 카드뮴이 들어있습니다'라고 추가 표기한다. 무료 노인외치 보철 시술대상이 만 70세 이상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서 만 65세 이상으로 지원대상이 확대된다. <자료 제공=제주특별자치도>

“밭갈소는 뒷걸음질 치지 않습니다.”



기축년 ! 소의 해가 밝았습니다.
 묵묵해서 더 힘이 있다는 그 가르침으로
 새로운 도전의 씨앗을 뿌릴
 제주 재창조의 밭을 갈 것입니다.
 타성과 갈등으로 굳어져버린
 우리의 현실에 희망의 새순을 돋아나게 하려고
 소는 지금 뒷걸음질 칠 수가 없습니다.

2009 제주 재창조의 해

Jeju 제주특별자치도